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현재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지구 생태계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깊이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공감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청정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뛰어넘어 사회, 경제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87%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입니다.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급원을 전환하고, 에너지소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절실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20년간 미완성으로 멈춰서 있는 전력시장의 구조개편과 경쟁도입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실효성 있는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 못지않게 에너지 가격 기능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그린수소는 국내 생산 외에 해외로부터의 도입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 계획 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SS 및 양수발전의 확대 및 전력계통 보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에너지공기업의 기능 재조정 등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에너지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좌초자산 처리문제, 지역경제 침체 및 일

자리 감소문제 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 사회, 조직, 정부 등에 영향을 미칠 사회 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오래 걸리고 진통이 크더라도 관련 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에 대해 저마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토론해서,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 구분이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다투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직은 탄소중립의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전례 없이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역경을 지혜롭게 극복한 역력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기도 힘겹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내고 있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는 지혜를 통해, 다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